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强 대 强’ 대치 격화

與 ‘尹거부권법’ 처리 뒤 특검수사 확대
野 “경제 성장 외치며 ‘경제 악법’ 처리”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신속안건 유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반대를 뚫고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지지층 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여론전을 벌인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도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대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5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상 각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강제로 종결시키고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 걸쳐 통과한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전임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

던 이른바 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열릴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

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카드를 쓴다는 판단에서다.
내용상으로도 한시적 제도인 특검은 수사 중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죄가 확인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한편,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 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데다, 민주당이 이들 인권위원 후보가 부적격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수기자



文 전 대통령 부부 만난 조국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념 촬영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하반기 제도·시책 40건 달라집니다”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전남도가 일자리, 관광, 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신규 도입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달러당 100만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용 해조류 안전성 검사비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전남 이전 벤처기업 고용 규모별 1~5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운영 청년창업자 150명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 지급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 제공 등이 대표 개선 사항이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6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최대 15만원(회당 5천원)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 취업·창업 시 근무기간별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금 지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2개 시·군 확대 적용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신규 시행 등이 핵심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신규 도입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 강화 ▲담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비 상향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 매월 6만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 착수를 통한 향후 전남 모든 지역 확대 기반 마련 등이다.
/양시원기자

이개호 “소록도병원外 행정·관리, 郡 이관을”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시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소록도는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331명의 환자와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 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되고 있다.
문제는 소록도병원의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 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류 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이라며 “소록도병원 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 구역은 환자 치료·진료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이관해 공공용 재산의 유지·보수, 주민 정주여건 개선, 문화·자연환경 보존·관리 등 지자체의 행정·재정 행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국힘 대표선거…‘반탄파’ 김문수·장동혁 결선 진출

당원 80%+여론조사 20% 내일 선출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장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본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1·2위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

나,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26일 당 대표를 결정한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이른바 ‘반탄파’에 속한다. 결선 진출자 발표 직후엔 각각 ‘단결’과 ‘내부총질자 정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마지막 방송토론회 이후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며, 결선 투표 역시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